



제397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홍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058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대영

목 차

1. 제안 및 회부	1
2. 제안이유 및 주문	1
3. 검토의견	4

1. 제안 및 회부

- 1)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1. 11. 1.
- 3) 회부일 : 2021. 11. 8.

2. 제안이유 및 주문

가. 제안이유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 독립에 대한 꿈을 품고 또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이 뜻을 이루고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민족독립운동단체 홍사단 본부를 차렸음. 홍사단은 이곳에서 해방을 위한 민족 교육과 임시정부 자금 지원에 큰 힘을 보탬.

하지만, 100년의 독립운동 역사를 가진 ‘LA 홍사단 본부 건물’이 철거 위기에 내몰렸음. 2년 전 홍사단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서 되찾을 기회도 있었지만 수십억원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되찾지 못했고, 결국 중국계 건설사가 홍사단 건물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지가 사라지게 될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LA 홍사단 본부건물’이 보존되어야 할 독립역사의 중요한 유산임을 분명히 하여 미국 내 사적

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 또한,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나. 주문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 독립의 꿈을 안고 미국 LA에 ‘홍사단’을 설립하였다.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설립된 홍사단은 미국 내 교포들의 결속을 다지고, 독립운동을 위한 핵심 인물들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일제에 의해 안창호 선생이 투옥되고 국내 홍사단 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홍사단 본부는 굳건히 단을 지켜 오늘날까지 그 역사의 맥을 잇고 있다.

그런데 100년의 독립운동 역사를 간직한 ‘LA 홍사단 본부 건물’이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 1978년 자금 마련이 어려워 한인들은 본부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도 본부 건물을 되찾아 올 여력이 안 되었다. 결국 중국계 건설사가 최근 홍사단 본부 건물을 사들였고, 아파트를 짓겠다며 LA 시의회에서 철거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교민들은 사적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현재 1차 공청회를 통과했지만, 중국 건설사가 대형 로펌사를 선임하는 등 불리한 여건에서 3번의 공청회를 넘겨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독립역사의 소중한 유산인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보존을 위해 미국 내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과정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LA 홍사단 본부 건물’이 보존되어야 할 독립역사의 중요한 유산임을 분명히 하여 미국 내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하여 앞으로 진행될 3번의 공청회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LA 홍사단 본부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필요성을 전국민에 알려, 국민이 홍사단의 상황을 인지하고 공청회 등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검토의견

□ 결의안은 LA 홍사단 본부 건물이 독립운동역사의 중요한 유산임을 고려하여 정부가 미국 내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전 국민에게 LA 홍사단 본부건물의 현재 상황을 알려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임.¹⁾

□ LA 홍사단 본부 건물은 1910년대 미국 지역의 한인들이 연합하여 결성된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창립기념식이 개최된 장소이고,²⁾ 일제 강점기에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논의하는 중심지로 이용되었으며, 40여 년간 홍사단 본부로 사용된 건물로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임.

<LA 홍사단 본부 건물 개요>

- (소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3421 South catarina St.
- (건립연도) 1910년 (1932~1978년 동안 미주 홍사단 총본부로 운영)
- (건립규모) 목조 2층(원형건물), 콘크리트 2층 (대지 578m², 건물 약 261m²)

1) 홍사단은 1913년 5월 13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 민족부흥을 이루기 위해 설립되었고, 덕(德)·체(體)·지(知)의 3육(三育)을 강조하였으며, 미주 한인들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주요 활동으로는 ①105인 사건, 3·1운동, 동우회 사건 등에 연루 투옥되는 등 독립운동에 직간접적 참여, ②1926년 월간지 「동광」 창간, 1933년까지 40호 속간 발행, ③1950년대~1970년대 초 송중익 홍사단 장학금을 만들어 한국에서 유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실시함.

2) 1909년 2월 1일 하와이의 합성협회(合成協會)와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共立協會) 등 미주지역의 한인 단체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결성 당시에는 ‘국민회(國民會)’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1910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와 통합하면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라는 명칭을 사용함.

- (소유자) Tripalink(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 2020. 4월 개인으로부터 매입)
- (특이사항) 1994년 홍사단소 관련 유물 독립기념관 이전(현판, 집기, 자료 등)

자료: 국가보훈처

□ 한편, LA 홍사단 건물 연혁 및 유적지 지정 관련 경과를 보면, 1932년 8월 홍사단은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였고, 1978년 홍사단의 재정난으로 해당 건물이 매각되었으며, 2020년 4월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가 매입하여 현재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LA시로부터 건물 철거 허가를 받은 상황임.

<LA 홍사단 건물 연혁 및 유적지 지정 관련 경과>

- (1932. 8.) 미주 홍사단 본부 건물 매입(2천 5백 달러)
- (1978) 홍사단 본부 재정난으로 미국인에게 매각(8만 달러)
- (2019) 재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포기
- (2020. 4.)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가 재개발을 목표로 매입(185만 달러)
- (2021. 9.) 홍사단 건물 구입추진위원회 발족
 - 한국 정부에 건물 보존 촉구 청원서 제출(2021.6.10.)
 - LA시에 역사문화유적지 지정 신청서 제출(2021.6.18.)
- (2021. 7. 15) LA시 유적지 지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1차 공청회 개최
 - 유적지 지정 찬성 25명, 반대 2명(개발회사)
- (2021.11. 4) LA시 유적지 지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2차 공청회 개최
 - LA시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 찬성으로 LA시의회 소위 회부
- (향후 절차) LA시의회 기획토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전체 회의

자료: 국가보훈처

이에 LA지역의 한인교포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홍사단 건

물을 보존하기 위해 홍사단 건물 구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LA시에 역사문화유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LA시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 1·2차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우세하여 LA시의회 기획토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향후 해당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사적지 지정이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국가가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해 LA 홍사단 본부 건물이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

특히 LA 홍사단 본부 건물은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40여 년간 사용된 공간인 동시에 현재 일제강점기 활용된 홍사단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주지역 교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주문 2에서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하여

앞으로 진행될 3번의 공청회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주문한 바, 현재 공청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 LA시의회 기획토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므로 주문 2를 삭제하거나, “LA 홍사단 본부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하여 LA시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실효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문 3에서도 “국민이 홍사단의 상황을 인지하고 공청회 등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주문한 바,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국민이 홍사단의 상황을 인지하고 LA시의회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결의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외교부와 함께 LA시의회 관계자 등과 적극 협력하여 홍사단 본부 건물이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당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입·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문 의 처
(6788-5110)

